

# 한글성서 번역에 나타난 호칭어

전혜영\*

## 1. 들어가는 말

누구나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주저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만 사회적 관계로 만난 상대방에게 ‘선생님’으로 불러야 할지 ‘아저씨’라고 불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대화의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호칭어’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반영하는 언어적 장치로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대화에서 어떤 호칭어가 선택되는가에 따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기에 실제로 호칭어 사용은 대화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한국어의 화용적 상황에 맞게 성서를 번역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호칭어도 번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성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장면에서 사용된 호칭어들은 한글 성서에서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궁금하다. 그 까닭은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가 복잡하여 성서 원문의 언어인 히브리어, 희랍어의 그것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엮어내는 담화의 상황을 한국어의 어법에 맞추어 번역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글성서들 사이에 호칭어가 다르게 번역된 경우가 많은 것이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본문의 호칭어가 어떤 번역에서는 ‘주여’로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서는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데(창 24:18의 경우),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면 무슨 까닭에 서로 다른 것인가? 일차적으로 이 차이는 원문 일치 원칙을 준수하느냐 내용 일치 원칙을 준수하느냐 하는 번역의 원칙에 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원칙을 취하더라도 어떤 호칭어로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번역자들을

---

\* 이화여대, 국어학.

고민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할 때 언어적 차이로 인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번역된 성서는 그 표현 방식이 한국어이기에 국어학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성서에 나타난 호칭어의 실상을 검토하고, 한국어 호칭어 체계와 관련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사용 방식

한국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에 대한 화용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말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담화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이것을 성서의 담화 상황을 번역하는 데에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성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되어야 하지만 이 번역된 문장이 한국어로서 자연스럽지 않다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칭어의 번역에서도 어떤 것이 한국어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호칭어인지 알아야 하기에 한국어 호칭어 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호칭어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호칭어’라는 용어는 화자가 청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상대를 부르기 위해 사용되는 부름말(terms of address)을 가리킨다.<sup>2)</sup>

1) 예를 들어 ‘오다/가다’ 동사의 용법에 대한 한국어 화용론적 지식이 반영됨으로써 어떻게 번역이 달라졌는지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20을 보면 『개역』의 ‘오다’동사가 그 이후 번역에서는 ‘가다’동사로 바뀌었는데, 이는 한국어의 용법에 맞게 고쳐진 것이라 하겠다. 한국어 ‘오다/가다’ 동사의 용법에 대해서는 이기동(1977) 참조.

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개역』

②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공동』

③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표준』

2) 곧 ‘김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요’나 ‘김 선생님, 저도 같이 가요.’에서 사용된 ‘김선생님’과 같이 상대방을 그 면전에서 직접 지시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건 김 선생님이 아끼는 물건이야.’에서 제 3자에게 가리키는 형식으로 사용된 ‘김 선생님’은 지칭어로서, 이 글에서 말하는 호칭어의 범위에 넣지 않기로 한다.

- (1) 직함+님: 교수님, 선생님, 과장님, 대리님, 사장님<sup>3)</sup>
- (2) 성+직함+(님): 김 교수(님), 이 부장(님), 오 대리(님)
- (3) 성+이름+직함+(님): 김영수 교수(님), 이영호 과장(님)
- (4) 성+이름+[ㅁ, -님, 씨, 군/양]: 김영수, 김영수님, 김영수 씨, 김영수 군/이영미 양
- (5) 이름+[ㅁ, -야, 씨, 군/양]: 영수, 영수야, 영수 씨, 영수 군/영미 양, ?영수님
- (6) 성+[씨, 군/양, 형, 가, -님]: 김 씨<sup>4)</sup>, 김 군/양, 김 형, 김 가, ?김님<sup>5)</sup>
- (7) 성+이름+친족호칭: 김영수 형(오빠), 김영수 아저씨
- (8) (성)+직함+친족호칭: 오 사장 아저씨, 김 대리 오빠, 원장 할아버지, 간호사 언니
- (9) 성+[양/군, 씨]+친족호칭: 김 양 언니, 김 군 오빠, 김 씨 할머니
- (10) 친족호칭+(님):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아버지, 숙부님
- (11) 이름+친족호칭: 영수 형(오빠), 영수 삼촌
- (12) 아이이름+친족호칭: 인호아빠, 인호삼촌, (인호)애비야
- (13) 2인칭 대명사: 너, 그대, 자네, 당신
- (14) 외래어형(Mr+성): 미스터 김, 미스 리
- (15) 일반명사형: 선배, 총각, 학생, 젊은이
- (16) 택호명: 마산댁, 목포댁
- (17) 호출어형: 어이, 이봐, 여기요, 저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호칭어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으며, 상

3) \*‘운전사님’ 대신 ‘기사님’이 사용되고, ‘주부님’까지 사용되면서 <직함+님> 형태의 용법이 확산되고 있다. 직함 호칭어의 일반화 현상으로 ‘사장님’의 경우 직함과 상관없이 성인 남자를 높이는 호칭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여기서 ‘씨’의 사용법은 독특하다. ‘김철수 씨’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지만, ‘김 씨’의 경우는 청소부라든가 노동자의 일꾼 등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어감을 준다. 또 여성에게 사용할 때는 ‘김 씨’라고 쓰지는 않고, 대신 ‘김 씨 아주머니, 박 씨 할머니’ 등으로 쓴다.

5) 최현배(1982:783)에서 부름말의 예로 ‘김 님’을 제시하고 있다.

예) “김 님 언제 왔소?”

<성+이름+님>형태의 호칭어는 은행, 병원 등의 창구에서 손님을 부르는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공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위와 관계없이 청자를 존대하는 호칭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통신언어에서 ‘님’의 확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채팅에서는 <이름+님>형태의 부름말에서 나아가 <님>을 대명사적 용법으로도 사용한다.

예) 화영 님, 닐은 어케 생각하세요

황에 따라 호칭어를 사용하는 방식도 아주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도 호칭어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이다. 호칭어를 선택할 때는 친족관계, 사회적 지위, 나이, 결혼 여부, 남녀 성별 등의 사회적 요인과 친소관계에 따른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어떤 호칭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황적륜(1975) 참조).<sup>6)</sup> 이제 한국어 호칭어 체계에서 보이는 유형상의 특징과 사용 방식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무엇보다 호칭어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다. 특히 친족관계에 따른 호칭어가 다양한데, 친가, 외가, 처가, 시가, 친정 등의 계보에 따라 아주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은 그 만큼 한국 사회에서 촌수와 혈연의 계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친족호칭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순위 친족을 부를 때는 친족관계명에 ‘-님’을 결합한 형태를 쓰고 손아랫사람에게는 이름 호칭어를 쓰게 된다. 이때 나이와 결혼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어렸을 때 이름을 부르던 동생에게도 ‘동생’이나 ‘아우님’의 호칭을 쓰게 되며, 결혼한 아들에게 ‘애비’로, 오빠를 ‘오라버님’ 등으로 부르게 된다.

한국어 호칭어 사용 방식 중 특이한 것은 타인에게도 친족호칭어를 쓴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해서도 ‘아저씨, 할아버지, 형님, 언니’라든가 ‘김 양 언니, 원장 할아버지, 오 사장 아저씨, 유관순 누나, 서태지 오빠’ 등으로 친족호칭어를 확대하여 쓴다는 것은 혈연중심의 촌락을 구성하고 살던 문화의 반영으로서 가족의식의 확대로 볼 수 있다.<sup>7)</sup>

간접 호칭어인 종자명 호칭어를 쓰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아이를 중심으로 한 호칭어를 쓰는 것은 한국어만의 특징으로 자녀 유무가 호칭어 선택의 변수로 작용함을 보인다. 청자와 아이의 관계에 따라, ‘인호 아빠, 인호 할머니’라고 하거나 아이의 관점에서 부르는 형태(고모부, 삼촌 등)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아이 이름이 그의 부모를 가리키기도 한다.<sup>8)</sup>

또한 호칭어에 나타나는 서열이 분명하다. 신분적 준비관계는 유교적 신분사회에 비해 많이 변했지만, 호칭어에 담긴 서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름 호칭어는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랫사람이나 동급의 청자에게 한하여 사용한다. 서열상 존대해야 하는 청자일 경우에는

6) 이익섭(1994:227-34)은 여러 요인을 서열과 친분의 두 요인으로 통합하여 볼 때, 서열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한다. 서열에서는 친족 서열이 사회적 서열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7) ‘오빠부대’라는 용어, 상업적 의도에서 사용하는 ‘언니, 이모, 어머니, 삼촌’ 등의 확산이 가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8) 예를 들어 인호의 할아버지가 ‘인호야’하고 부를 때, 그 대상이 인호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인 경우를 말한다.

친족인가 사회적 관계인가에 따라, <친족호칭+님>(아버님 이모님)의 형태나 <직함+님>(과장님 사장님 교수님)의 형태를 쓴다.

또 화자의 성별에 따른 형태 차이가 있어서 화자가 여자일 경우 ‘오빠, 언니’라고 부르는 대상에게 화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형’, ‘누나’라는 다른 호칭어를 사용한다. 남녀간 비대칭적 사용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이름+씨> 형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남편은 <이름+야>를 사용하는 데 반해, 아내는 <이름+씨>로 부름으로써 남성 우위의 호칭어 사용 방식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어의 특성상 호칭어는 대우법 어미와 호응하여 사용해야 한다. 즉, 존대 호칭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맞는 존대의 종결어미를, 비존대 호칭어를 썼을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 비존대의 종결어미를 쓰는 것이다.<sup>9)</sup>

김 교수님, (\*어디 가니/ 어디 가십니까?)(\*는 비정상적인 문장이라는 표시임)  
영수야, (어디 가니/ \*어디 가십니까?)

호칭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관계의 진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국어 호칭어의 전이 방식에서도 격식형에서 친근형으로 전이되는 언어 보편적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서구 언어와 달리 상하관계가 분명한 경우에 아무리 친해진다 해도 하위자가 상위자를 이름형으로 부를 수 없다. 또한 친근형으로 전이될 때 아랫사람이 먼저 자신이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묵시적인 상하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게 되는데,<sup>10)</sup> 이는 서구 언어의 전이 유형과 상반된 현상으로서 한국사회의 수직적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담화상황에 대한 고려가 호칭어 변화에 작용한다. 서열, 친분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도 격식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호칭어가 바뀔 수 있다. 주변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둘만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호칭어가 달라진다. 화자가 선택한 처음의 호칭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9) 그런 의미에서 호칭어는 형태적 특성에 대한 논의만으로 한정될 수 없고, 대우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면상 이 글에서는 호칭어에만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호칭어와 종결어미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유동석(1990) 참조. 성서의 대우법에 대한 논의는 전해영(1994) 참조.

10) 박정운(1997:522-25)에서 지적한 것처럼, 유학생 신분의 두 사람이 처음에는 서로 ‘○○ 씨’ 하다가 친해지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상대를 ‘형’이라고 부름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어의 경우 상위자가 먼저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에 따라 전환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화에 끼여들 경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호칭이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 교수 사이의 대화라고 할 때, 사적인 대화에서는 ‘영수야’로도 가능하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김 선생’ 또는 ‘김 교수님’ 등으로 바뀌게 마련인데, 이때 화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직위와 함께 사적인 관계에 맞게, 또 담화상황에 맞게 적절한 호칭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 3. 호칭어 번역의 양상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사용 방식의 특성이 성서 번역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번역 성서의 호칭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과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을 비교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번역을 참고로 제시하였다.(앞으로 『개역』, 『공동』, 『표준』 등 약칭을 사용함)

#### 1)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형태적 고려가 필요하다.

원문에 있는 <이름>형 호칭어들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어에서는 <이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이름에 ‘-아/야’와 같은 호격 조사를 첨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들은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원문에는 없는 형태인 ‘-아’가 첨가되어 있다.

##### (1) 창 22:1

① 개역: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② 표준: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하고 부르시니

##### (2) 삼상 3:10

① 개역: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② 표준: 그런 뒤에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다음의 예를 보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야’라는 조사를 ‘그리스도’에 붙여 사용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침을 뱉고 때리며 경멸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호칭어인데, 번역에서 원문에 없는 ‘-야’를 첨가함으로써 이 장면이 갖는 분위기를 살리고 대우의 등급상 아랫사람 취급을 하는 것임을 나

타내게 된다.

(3) 마 26:68

- ① 개역: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 ② 공동: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
- ③ 표준: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다음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호칭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이 호칭어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자연스러운 호칭어로 자리 잡았지만, 실상 한국어 어법상으로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영수님’이라는 <이름+님>호칭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그리고 <이름+여/이여> 형식의 호칭어도 마찬가지로인데, 일상언어에서 ‘영수여’와 같은 호칭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러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예문 (4)는 귀신들린 자가 예수를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된 것이다. 예문 (5)에서는 <이름+여/이여> 형태가 자연스럽게 않다는 점이 감안되어 <이름>만으로 바뀐 것을 보여준다.

(4) 막 1:24

- ① 개역: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 ② 표준: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5) 사 16:9

- ① 개역: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 ② 표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2) 한국어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호칭어 사용방식에 맞게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보면 『개역』에서는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방식을 볼 때 이것은 한국어의 일상언어 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공동』과 『표준』에서는 ‘아버지’로 호칭어를 바꾸었다.

11) 최근에 와서 이런 형식의 호칭어 사용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자연스러운 용법이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어색한 용법이다.

## (6) 창 22:7

① 개역: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② 공동: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애야! 내가 듣고 있다.”

③ 표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애야, 왜 그러느냐?”하고 대답하였다.

또 한국어 담화 상황에서 ‘너’라는 인칭 대명사로 상대를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개역』에서는 원문 일치를 위해 2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어법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지 못하다. 다음 예를 보면 『개역』에서 사용된 ‘너’가 『표준』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아래 예문에서 ‘->’는 『개역』에서 『표준』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7) ① **너->노인**: 바로가 야곱에게(창 47:8)

② **너->형님**: 모세가 아론에게(출 32:21)

③ **너->아가씨**: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창 24:23)

또한 ‘당신’이라는 호칭어도 손윗사람에게 쓸 수 없는 호칭어여서 번역에서 사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개역』에서 사용된 ‘당신’이라는 호칭어를 『표준』에서는 상황에 따라 생략하거나 관계에 적절한 형태라고 될 만한 것으로 바꾸었다.<sup>12)</sup> 귀신들린 자가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라고 한 경우(마태 8:29)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는 윗사람으로 존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겠다.

(8) ① **당신들->손님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창 18:3)

② **당신들 ->형들**: 요셉이 형들에게(창 37:7)

③ **당신->아우님**: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창 50:18)

④ **당신->어른**: 롯이 보아스에게(룻 2:13)

⑤ **당신->선생님**: 요한이 예수에게(마 3:14)

⑥ **당신->총독님**<sup>13)</sup>: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요 18:30)

12)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생긴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전무용(1993:56-57)에서는 우리 문화를 고려하여 윗사람에게는 ‘당신’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13) 이 호칭어의 변화가 재미있게 생각되어 다른 번역까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또 -> 각하 ->당신-> ♣(생략)-> 총독님’으로 다양하게 번역된 것을 볼 때 호칭어 선택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2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우의 등급이 서로 다르므로 번역간에 다른 대명사로 바꾸기도 한다. 『개역』의 ‘너’가 『표준』에서 ‘그대’나 ‘자네’, ‘당신’으로 바뀌는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대우의 등급을 높여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 너->그대

- ① 주의 천사가 롯에게(창 19:12)
- ②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창 20:15)
- ③ 바로가 요셉에게(창 45:17)
- ④ 대제사장이 예수에게(마 26:63)

(10) 너->자네 : 라반이 사위 야곱에게(창 30:27)

(11) 너->당신

- 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창 20:9)
- ② 총독이 예수에게(마 27:11)
- ③ 예수가 총독에게(마 27:11)
- ④ 예수가 대제사장에게(마 26:64)

3)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맞는 적절한 호칭어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성서에는 다양한 관계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만나서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어는 어떤 것일까? 인물들의 여러 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개역』에서 『표준』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이기로 한다. (앞에서 다룬 2인칭 대명사 호칭어는 제외함)

(12) 부부 사이

- ①아브람이 사래에게(창 12:11): **그대->여보, 당신**
- ②야곱이 라헬에게(창 30:1-3): **그대->당신**
- ③욘 부부(욘 2:9-10): **그대<->당신->당신<->당신**

(13) 부모와 자식 사이:

- 
- 로스: 우리가잡아**사또**의게닐으지안아실이다
  - 구역: **각하**의게 잡아오지 아니 하엿겟노라
  - 개역: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 공동: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 표준: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 ①아브라함과 이삭(창 22:7-8): **내 아버지여->아버지/ 내 아들아->ैया**
- ②리브가가 야곱에게(창 27:8): **내 아들아->ैया / (창 27:13) 내 아들아->아들아**
- (14) 형제/자매 사이
  - ①야곱이 에서에게(창 33:8): **내 주->형님**
  - ②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창 42:10): **내 주여->총리어른**
  - ③아론이 모세에게(출 32:22): **내 주여->아우님**
  - ④라헬이 레아에게(창 30:14): **형->언니**
  - ⑤다말이 암논에게(삼하 13:12): **내 오라비여->오라버니**
- (15) 노인과 젊은이
  - ①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창 24:18): **주여->할아버지**
  - ②엘리후가 욥에게(욥 33:1): **욥이여->욥 어른**
  - ③노인 엘리가 청년에게(삼상 4:16): **내 아들아->젊은이**
- (16) 장인과 사위
  - ①야곱이 라반에게(창 30:26): **외삼촌->장인어른**
- (17) 주인과 하인
  - ①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창 39:9): **당신->마님**
  - ②종이 주인에게(마 13:27): **주여->주인 어른/ (마 25:20) 주여->주인님**
- (18) 왕(왕후)
  - ①요셉이 바로에게(창 41:16): **바로->임금님**
  - ②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삼하 14:4): **왕이여->임금님**
  - ③왕이 에스더에게(더 5:3): **왕후 에스더여->에스더 왕후**
- (19) 기타
  - ①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창 18:3): **내 주여->손님들**
  - ②룻이 동네사람에게(창 19:7): **내 형제들아->여보게**
  - ③한나가 엘리에게(삼상 1:26): **나의 주여->제사장님**
  - ④보아스가 룻에게(룻 2:8): **내 딸아->여보시오, 새댁**
  - ⑤룻이 보아스에게(룻 2:13): **내 주여->어른**
  - ⑥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마 27:63): **주여->각하**
  - ⑦베드로가 무리에게(행 2:22): **이스라엘 사람들아->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 ⑧무리가 베드로에게(행 2:37): **형제들아->형제자매 여러분**

호칭어의 변화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개역』에서 직역 위주로 번역된 ‘주여’ 호칭어가 『표준』에서는 담화상황을 반영하여 ‘형님, 아우님, 할아버지, 주인님, 총리어른, 각하, 어른’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어떤 형태가 담화상황에 가장 잘 맞는가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인 모세를 부를 때 형 아론이 사용하는 호칭어는 무엇이며, 총리가 된 요셉을 그 형들이 부른 호칭어는 무엇이며,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호칭어나 욥을 부르는 호칭어, 제사장을 부르는 호칭어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사용한 호칭어는 무엇일까 매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서의 인물들이 처한 담화상황을 살리는 효과면에서 볼 때 『표준』에서 다양한 호칭어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4)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어를 반드시 써야 할 것인가도 고려할 문제이다.

원문에 호칭어가 사용되었으면 반드시 번역에서도 호칭어로 살려서 번역할 것인가, 또 원문에 호칭어가 없는 경우에 호칭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에서 호칭어가 생략될 수 있는 것처럼 성서 번역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음 예를 비교해보면 (20-22)에서는 『개역』에서 사용된 호칭어가 『표준』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적절한 호칭어를 찾기 어렵거나 대화의 상황상 호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호칭어를 생략하는 한국어 호칭어의 사용 방식을 따른 것이라 하겠다.

(20) 창 43:19-20

①개역: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②표준: 그들은 ...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 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21) 창 44:7

①개역: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②표준: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2) 창 38:16

①개역: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②표준: 그때에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와 달리 (23-24)에서는 이전 번역에는 없던 호칭어가 추가되고 있다. (23)에서는 『개역』에는 없는 부름말 ‘여보’가 추가되어 부부 사이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24)에서도 원문에 없는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살려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23) 창 12:11

- ①개역: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 ②표준: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24) 삼상 3:4

- ①개역: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 ②표준: 주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하고 부르셨다.

5) 한국어로 사용되는 일반적 상황 이전에 신학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성서 속 인물들이 사용하는 호칭어를 번역할 때 한국어 사용자의 일반적 인 대화 상황에 비추어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일반 한국어의 상황으로 번역해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예수와 상대자들에 대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한국어의 어법만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에 대한 호칭어는 화자가 누군가에 따라 즉, 제자들인가, 율법학자들인가, 빌라도인가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 반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에 따라서 호칭어가 달리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에 대한 호칭어는 주로 ‘주여’, ‘주님’, ‘선생님’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여->주님’으로 변한 것은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상대방을 부를 때 ‘○○-여’하고 부르지 않는 현대 한국어의 어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25) 예수가 청자인 경우

- ①제자: **주여->주님**(마 8:21)
- ②환자: **주여->주님**(마 8:2)
- ③백부장: **주여->주님**(마 8:6)
- ④가나안 여자: **주여->주님**(마 15:27)
- ⑤귀신들린 자: **당신->당신**(마 8:29)
- ⑥율법학자: **선생님->선생님**(마 8:19)

(26) 예수가 화자인 경우

- ①베드로에게: **시몬아->시몬아**(마 17:25)
- ②중풍병 환자에게: **소자야->아이야**(마 9:2)
- ③혈투증 앓는 여자에게: **딸아->딸아**(마 9:22)
- ④가나안 여자에게: **여자야->여자여**(마 15:28)
- ⑤유다에게: **친구여->친구여**(마 26:50)
- ⑥총독에게: **너->당신**(마 27:11)

다음에 예문으로 제시한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에서 나오는 호칭어는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이라 하겠는데, 예수와 그의 어머니 사이를 단순히 모자간의 대화라는 상황에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여자’, 한국어의 어법에 맞게 하면 ‘어머니’로 번역될 수 있다. 따라서 원어에서 사용된 ‘여자’[yovvai]를 그대로 ‘여자’로 번역하게 되면 한국어의 어법에 비추어 볼 때 불경한 표현이 된다. 그간의 번역을 검토해 보면, ‘어만아->녀인아->여자여->어머니->여자여’로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호칭어에 대한 번역자들의 고민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어의 어법보다는 신학적인 해석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여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이 유력하다.<sup>14)</sup> 이렇게 번역할 경우 독자들이 의아해 할 수 있겠으나 선택된 호칭어를 통해 일반적인 모자관계가 아니라는 신학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27) 요 2:4

- ①로스: **어만아**는나과무삼상관이요
- ②구역: **녀인아** 나하고 무삼 상관이 잇느뇨
- ③개역: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 ④공동: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 ⑤표준: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4. 마무리

지금까지 한글성서 번역에서 호칭어를 번역할 때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한국어 호칭어의 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실제 번역에 사용된 호칭어 예를 비교함으로써 번역된 호칭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번역간에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번역의 원칙과 상관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가 아주 복잡해서 그것을 성서 번역에 반영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호칭어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름형의 호칭어는 한국어의 형태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번역하게 되며, 대명사 호칭어의 경우 원문의 대명사 용법을 그대로 번역할 경우 한국어의 실제 사용방식과 잘 맞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호칭어 번

14) 서중석(1988)에 의하면, ‘어머니’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요한의 독특한 사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상상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자’ 또는 ‘여인’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한다.

역에는 일반적 상황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신학적 문제가 있음도 보았다. 전체적으로 『개역』과 『표준』의 호칭어 번역을 비교해 보면 『개역』에 비해 『표준』의 호칭어가 형태적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사용방식에 맞게 번역되고 있다. 대명사 호칭어가 상황에 맞는 직함 호칭어로 바뀌거나 등급이 조정되었다. 또한 『개역』에서 사용된 동일한 형태의 호칭어(예: 주여)가 『표준』에서는 담화상황에 따라 직함호칭어 형태로(제사장님), 친족호칭어 형태로(할아버지), 일반명사형 형태로(주인어른)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국어학자의 입장에서는 성서 원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어답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호칭어 번역에서도 한국어의 어법에 맞고 한국어의 풍성한 표현 방식을 살릴 수 있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번역된 성서에서 호칭어가 보여주는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어서 원문에서 사용된 해당 호칭어와 대조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다만 한국어의 특성이 성서 번역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호칭어를 통하여 제시한 것으로 의의를 삼고자 한다. 호칭어 이외에도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성서 번역상의 문제들이 더 연구되어 성서 번역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희숙. 2002.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0-1.
- 김영덕. 1971. “한국 초기성서 번역체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8.
- 김중은. 1993. “한국어 성경번역의 역사”, 기독교사상, 411.
- 나채운. 1971. “국역성서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성서국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 4.
- 나채운. 1990. “우리말 성경번역의 역사”,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 민영진. 1984. 국역성서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 민영진. 1993.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의 번역지침과 특징”, 기독교사상, 410.
- 민영진. 1996.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박갑수. 1989. “국어 호칭의 실상과 대책,” 국어생활, 19.

- 박정운. 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2.
- 서정수. 1979.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부름말과 가리킴말,” 한글, 165.
- 서정수. 1985. “초기 우리말 성경의 표기법과 대명사에 관하여-『성경직희』를 중심으로”,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 서중석. 1988. “신약전서 새번역 평가-복음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352.
- 성기철. 1985. 현대 국어 대우법 연구. 서울: 개문사.
- 유동석. 1990. “국어 상대높임법과 호격어의 상관성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6.
- 유창균. 1967. “국역성서가 국어의 발달에 끼친 영향-특히 어휘의 개신면을 중심으로”, 『동서문화』 창간호, 계명대학 동서문화 연구소.
- 윤지선. 1995. “2인칭 호칭에 관한 영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3-2.
- 이규창. 1992. 국어존대법론. 서울: 집문당.
- 이기동. 1977. “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분석”, 말, 2.
- 이익섭. 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정복. 2000. “통신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2.
- 전무용. 1993.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기독교사상, 410.
- 전혜영. 1993<sup>가</sup>.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I”, 기독교사상, 411.
- 전혜영. 1993<sup>나</sup>.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II”, 기독교사상, 412.
- 전혜영. 1994. “우리말 성경에 나타난 대우법-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3.
- 전혜영. 1998.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문화적 특성”, 한국 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출판사.
- 전혜영. 1999.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호칭어 교육”, 이승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정길남. 1992. 19세기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정재도. 1989. “부름말,” 국어생활, 19.
- 조항범. 1996. 국어 친족어휘의 통시적 연구. 서울: 태학사.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 II). 서울: 도서출판 느티나무.

- 최태영. 1985. “초기번역성경연구Ⅱ”,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서울: 기독교문  
사.
- 최현배. 1982.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한갑수. 1989. “호칭과 칭호,” 국어생활, 19.
- 황석자. 1999. “예수 담화에 나타난 인칭대명사의 기능-언술행위에 의한 화용  
론적 가치-”, 한국프랑스학논집, 27.
- Nida, E. & Jan de Waard(1986),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New York:  
Thomas Nelson Publishers.
- Bonvillain, N. 2003.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 Cho, Jun-Hak. 1982. “A Study of Korean Pragmatics: Deixis and Politeness,” 서  
울: 한신문화사.
- Holmes, J. 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New York: Longman.
- Hwang, J. R. 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Wardhugh, R. 1986.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Oxford: Blackwell.

<Abstract>

## A Study on the Terms of Address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Hae-Young Jeon  
(Ewha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system of terms of address in the Korean language, and compares various examples of their usage in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61) and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1993) in order to identify points to consider when translating the proper forms of address of the Bible into Korean.

The differences found in these translations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t translation principles adopted for each translation project, but they can also be viewed as a problem deriving from the extreme complexity of the forms of the address system itself, because it is not an easy task to reflect such complex terms of address in Bible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system, the forms of address are translated in consideration of Korea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pronouns, the literal translation of them from the original texts does not fit the ways they are used in the Korean language. Moreover, such translation leads to difficult theological problems that cannot be determined in advance.

On the whole, when the translations of terms of address are compared between the *KRV* and the *NKSV*, the forms of address in the *NKSV* are not only more diverse morphologically but also are more adequately translated according to Korean language usage than the *KRV*. The pronouns of the original text have been either translated into titles or adjusted per different levels of address forms in the *NKSV*. From the viewpoint of a Korean linguist, it would be crucial to translate the original texts into proper Korean as long as this does not misinterpret their meanings. In this regard, translations of forms of address should also be in line with Korean grammar and should make the most of the refined phraseology of the Korean language.